도교육청, 인사제도 전반 개선 추진

서거석 교육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 풍토 조성" 강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인사제도 개편에 나섰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인사를 비롯해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에 이르기까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사 만족도를 높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해 전북교육 정책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함이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적극적인 의지다.

먼저,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부터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TF에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원단체 및 교사노조 등이 참여한다. 9월 중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승진과 전보 관련한 1차 기초 설문조사 실시, 11월 개선안에 대한 교원 공청회 실시, 12월 2차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규모 학교 근무 기피현상, 담임기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 등이 주요 추진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TF를 운영, 오는 1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지방공무원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근무 기피현상 해소, 필수보직기간·순환전보 자격·기관점수 등 보직관리규정 개정, 사무관 역량평가제 등 승진임용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핵심이다.

설문 결과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TF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끝으로 교육공무직 인사제도 개편은 전보제도 개선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미 8월 전보관리 규정 개정(안)을 확정, 오는 20일까지 노동자 의견 조회를 거쳐 11월 법제심의 절차를 이행한 뒤 12월 규정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직종별로 인사제도 개선 TF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점을 보완·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직원들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가 K-MOVE 스쿨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일본어·IT 교육역량 '빛 발하다'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 K-MOVIE 스쿨 교육기관 선정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학과장 편용우)가 K-MOVE 스쿨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일본 취업 IT융합 전문가 연수 과정'을 진행, 프로그래밍, 일본어 등 총 1,021시간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K-MOVE 스쿨은 수강자들에게 총 300여만 원의 지원금과, 해외 취업 시 400여만 원의 해외정착금을 지원한다. 특히 수강자들은 교육 이수 후 일본의 우수 IT업체에 취업하게 된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K-MOVE 스쿨 교육기관 선정은 일본언어문화학과가 일본 AI 융합 전공을 운영하며 쌓은 일본어와 IT의 교육역량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다. 2022년부터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창업 지원도 시작해 재학생들은 자기 적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편용우 학과장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많이 느낀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학과 교수 모두 학생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육연수원,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교육 23일까지 실시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은 오는 23일까지 '2022년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266명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공직자의 가치와 책무성을 정립하고, 임용 후 교육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직무 지식을 습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올해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육생 간 유대감 형성과 교육의 집중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원장은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이 시기에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임용예정자들이 전북교육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유능한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와게닝겐 대학원 진학 인력 배출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센터장 최동수 교수)가 참여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총괄 주관하는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비R&D)에서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원에 진학하는 우수 인력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와게닝겐 대학원은 식품 및 농업 부분 세계 1위 대학원이다.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비R&D)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웨비오, 델타텍코리아, 군산대 산학협력단(농생명융합기술센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산업부와 전북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국가혁신융복합단지육성 1단계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 1.5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는 현재 국가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으로 선정한 '스마트농생명융합산업'에 맞춰 기업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도내내 4개 대학(원광대, 우석대, 전북대, 전주대)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재학생, 졸업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생명 산업의 유기적 연계 분야들을 산업현장과 연구소 등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다.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원에 진학한 전수련 교육생은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와 전주대 바이오기능성식품학과(이정상 교수)에서 2021년과 2022년 실시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교육을 수료했다. 식품 및 바이오 분야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식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교육에 참여했으며 올해 여름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과 네덜란드 교육진흥원 장학금을 수혜하게 되어, 9월부터 학위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학교는 지난 14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전북 탄소중립 순환경제 협회 창립총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전북 탄소중립 순환경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설정 및 해법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탄소중립 순환경제협회 창립 지속가능 성장 꾀한다

2차전지산업 육성 · 성장기반 협력 등이 목표… 기업유치 등 중점

초대 협회장에 이장호 군산대 총장 ·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

군산대학교는 지난 14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전북 탄소중립 순환경제 협회 창립총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전북 탄소중립 순환경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설정 및 해법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창립총회 및 포럼은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가 주최하고 군산대학교, 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본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 주관했다.

창립총회에는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전북도의회 문승우, 강태창, 김동구 의원, 군산시의회 김우민 부의장, 지해춘 의원, 군장대학교 이계철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는 초대 협회장으로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과 ㈜성일하이텍 이강명 대표를 선임하고, 수석부회장으로 군산대학교 최연성 교수를 선임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협회는 재제조·2차전지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협력을 목표로 하며, 전북을 중심으로 한 전국 재제조 및 2차전지 관련 산학연관들을 구성체로 한다. 중점사업은 재제조 및 2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재제조 및 2차전지 산업육성 및 지원정책 연구, 관련 분야 기술 동향 및 산학연관산업 공동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순환경제 재제조 및 2차전지산업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이다.

또한 전북·새만금단지 내 2차 전지 및 재제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업별 재제조 성능 및 인증센터 운영,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연구센터 유치,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리센터 및 재사용 관련기업 유치, 건설기계 및 농기계, 상용·특장차 재제조기업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 창립 포럼에서는 김현태 (사)한국산업·건설기계 재제조진흥회 부회장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동향 및 발전 방향',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의 '전기차 주요 부품 재사용사업 사례 발표', 변석현 ㈜성일하이텍 이사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및 동향', (재)전북테크노파크 오미영 박사의 '전라북도 2차전지산업 추진 및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군산대 최연성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태 부회장, 남준희 대표이사, 변석현 이사, 오미영 박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북 탄소중립순환경제 산업발전 비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한편 이날 초대협회장으로 취임한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은 "전 세계가 자원의 재활용과 재제조 기반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고, 국내 역시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및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어, 전북탄소중립 순환경제협회의 창립이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전북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강명 협회장도 취임사를 통해 "전북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자원순환산업을 통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전기차,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업지원 정책 공조로 지역 내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5일부터 3주간 학과별로 2022년 2학기 LINC 3.0 사업의 산학연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위해 필요 역량 향상 기대"

전주비전대, 산학연 연계 주문식 교육과정 진행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5일부터 3주간 학과별로 2022년 2학기 LINC 3.0 사업의 산학연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 LINC 3.0 사업은 공유와 협업을 통한 자가확장형 선순환 산학연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산업수요기반 인재양성, △기업가치 창출지원, △산학협력 플랫폼 고도화, △산학협력 성과관리 고도화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산업수요기반 인재양성을 위해 전기과를 포함한 9개 학과에서 Power System 융복합 인력양성 과정을 비롯한 10개의 산학연 연계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LINC 3.0 사업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계과 박세현 학생은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LINC 3.0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LINC 3.0 사업의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들을 통해 취업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 향상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훈 단장은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에서는 참여학생들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산업체 전문가와 공동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들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역량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 노하우 공유

도교육청, 오늘 자연아이숲 유치원 시작으로 운영 현황 공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은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가정 내 부모의 놀이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5개원(공립 3개원, 사립 2개원)을 선정해 학부모 교육, 가정 내 유아 놀이지원, 원격수업 운영 시 부모의 역할과 방법 등 학부모 놀이지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인 운영 아이디어 및 자료의 일반화를 위해 도내 공·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16일 자연아이숲유치원을 시작으로 22일 전주성심유치원, 23일 장수한사랑유치원, 29일 익산부송유치원이 운영 현황을 공개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가정의 일상적 소통과 참여를 통한 연계교육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1학기에는 전주온샘유치원에서 공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가정과 유치원 등 교육공동체가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원광대 제14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 6명 응모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원광대학교 제14대 총장 선임 공모를 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총장 초빙 공모에는 조성갑(한국종합경제연구원 원장)·박성태(원광대 경영대학 교수)·남궁문(원광대 창의공과대학 교수)·박은숙(원광대 대외협력부총장)·김인종(전 원광보건대 총장)·박맹수(원광대 총장) 등 6명이 응모했다.

원광학원은 원광대 총장후보자 공모 시작과 함께 총장후보자를 평가할 평가위원회 15명을 추천 받아 구성했다.

평가위원회는 서류·면접심사, 공개토론회, 구성원 평가의견 접수 등의 평가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또 1개월의 평가기간에 총장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총장후보자 평가보고서를 채택, 원광학원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 후 원광학원 이사회는 추천받은 총장후보자 중 1인을 원광대 제14대 총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뉴시스